

# 한글 학회

받 음 김찬 문화재청장

말 음 박영근 문화재 활용국장

제 목 광화문 한자 현판 결정에 따른 공개 질의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빕니다.

2. 한글학회는 김찬 청장께서 취임할 때부터 청장님께서 수행하는 문화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훌륭한 문화정책을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걸려 있던 광화문 한글 현판을 떼어내고 한자 현판으로 바꾸어 단 데 대하여 우리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어 달아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12년 12월 27일 한자 현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공개 질의서를 보내니 2013년 1월 1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개 질의서와 2011년 편지 내용 각 1부. 끝.

한글학회 회장



총무부장 김한빛나리

회장

김종택

협조자 학술부장 성기지

시행 한글 2013-01호 (2013. 01. 02.) 접수

우 110-061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7(신문로1가)

누리집 [www.hangeul.or.kr](http://www.hangeul.or.kr)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편지

[hangeulzip@gmail.com](mailto:hangeulzip@gmail.com)

## 문화재청장 김 찬은 답하라

우리는 지난 2년간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현판을 억지로 조작된 한자현판을 떼어내고 지난 40여년 간 걸려 있던 한글현판으로 바꾸어 달아 줄 것을 절절히 호소하여 왔다. 그것이 역사의 당위이며 시대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장 김 찬은 생각의 한계인지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또 다른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인지 끝내 조작된 문화재인 한자현판을 걸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김 찬에게 묻는다.

1. 그 사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때마다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압도적으로 한글현판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까닭을 밝혀라.
2. 문화재청이 주최한 공청회(프레스센터)와 토론회(고궁박물관 강당)에 정작 주최자인 문화재청장은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직무유기인가 처음부터 계획된 요식행위였기 때문인가.
3. 공청회, 토론회와는 무관하게 한자, 한문이 아니면 문화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에 쓴 예산은 국고낭비가 아닌가.

이상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문화재청장 김 찬은 즉각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2012. 12. 28.

한글학회 회장 김 종 택

